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c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주경수(세바스티아노)
1 보좌신부 : 서기원(바오로)
2 보좌신부 : 김세영(파비아노)
전 교 수 녀 : 이정미(마르첼라)
정정순(큰체사)
박선옥(에드워드)
사 목 회 장 : 장병철(율리아노)
연 령 회 장 : ☎ 010-5411-5837

주일미사	토요일 15시(초등부), 토요 저녁미사 : 19시 / 주일 : 6시, 9시, 11시(교중미사), 15시(중고등부), 17시, 19시		
평일미사	월 ~ 토 : 6시 / 화 ~ 금 : 10시 / 화 ~ 금 : 19시	고해성사	주 일 미사 전 30분 평 일 미사 전 15분
봉 성 체	매월 둘째 목요일 10시 미사 후	유아세례	출수 달 첫째 토요일 17시
관면헌배	매월 둘째 토요일 17시		

소 식

금주의 성경 압송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16-18)

- 병자 안수 축복식: 7월 31일(오늘) 교중미사 후
- 성시간 / 병자 영성체 : 8월 없습니다.
- 성모 신심 미사: 8월 6일(토) 오전 6시
- 8월 6일(토) 15시 어린이 미사는 초등부 여름 캠프로 인하여 미사가 없습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안내
 - * 8월 15일(월)은 광복절이며, 전례력으로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가톨릭 4대 의무 대축일로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하시어 하느님과 성모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 이날 미사 때 헌금이 있습니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시간 ♣	
8월 15일 (월)	오전 6시, 11시(교중) 오후 7시

- 성모 승천 대축일 제대 꽃 봉헌 받습니다.
- ‘영성체 송’ 안내
 - * 8월 미사 전례부터는 사회자가 영성체송을 말하지 않고 바로 시편을 교우들과 함께 바칩니다.
- O' Brass 앙상블 초청 공연 안내
 - * 세계적으로 촉망 받는 12명의 젊은 벨기에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브라스 앙상블
 - * 일시: 8월 8일(월) 오후 8시, 2층 대성전
- 대입 수험생을 위한 100일기도 안내
 - * 일시: 8월 9일(화)~수능일까지(매주 화~금), 오전 9시
 - * 학부모 첫 모임: 7월 31일(오늘) 오후 2시
 - * 장소: 지하 성가정방
 - * 신청 및 문의: 본당 사무실(02-3447-0750)

- 장학금 후원 대상자 추천 의뢰(8월 10일 마감)
 - *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각 구역장님들을 비롯한 교우 여러분께서 후원 학생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천서류 양식: 본당 사무실 비치
 - * 문의: 이 미카엘(010-5476-4800)
- 자부 레지오 창립단원 모집
 - *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모여서 성모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 * 대상: 유치부, 초·중·고등부 아버지
 - * 활동: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캠프, 트래킹, 피정, 성지순례
 - * 문의: 이 베드로(010-3126-8666)
- 산악회 43차 산행 ‘인제 방태산, 아침가릿골’
 - * 일시: 8월 6일(토) 오전 6시 40분, 성당마당 출발
 - * 준비물: 화비(4만원-조식·중식 제공), 간식, 아쿠아 슈즈 지참
 - * 문의: 김 사도요한 (010-8592-7514)
- 바보회 회원들을 위한 봉헌미사 및 회원모집
 - * 봉헌미사: 매월 첫째 주일 오전 9시 미사
 - * 월례회: 매월 첫째 주일 오후 2시 지하 평화방
 - * 문의: 서 엘리사벳(010-7277-6285)
- 스테인드 글라스 설치 완료
 - * 대성전 2층과 3층 계단 창에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성모님의 희망과 순결을 상징하는 바다의 별, 백합을 이미지화 한 작품입니다.)
- 유아세례 사진 사무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모 임

- 8월 1일(월): 춘천교구 후원미사 (10시)
/ 성령 세미나 (강사: 오정순 알버나)
- 8월 2일(화): 여성 Co.
- 8월 5일(금): 남성구역 / 제대회 / 예비신자 봉사회
- 8월 6일(토): 복사단 자모회 / 청소년분과

성가번호 입 당: 37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512 성 체: 1174, 164, 179 파 견: 청담동 본당가

화 답 송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배우고 익히는데 왕도는 없다
'꾸준하게 반복하기'**

우리 아래층에는 성당의 한글 서예를 지도하는 헬레나 자매가 산다. 두 내외가 배우고 익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종종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9층의 데레사 자매가 그 서예 반에 들어간 지 2년 남짓 지났을까. 만사에 때가 있듯이 한동안 밖으로 여행을 다니며 바람을 빼더니 노인대학과 서예 반에 안착하여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다.

간간이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그냥 손 놓고 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눈으로 볼 때마다 글씨가 달라지고 스스로도 점점 실력이 나아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재미가 더 나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목적이 분명했다. 병풍의 뒷면에 아무 글씨도 없이 민자라서 자신의 글씨로 쓴 작품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이었던가 보다.

하루는 체본을 보고 거의 하루 종일 썼다고 하는데 놀랐다. 획마다 개성을 파악하고 중봉을 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며 글씨에 호흡이 작용한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끼고 쓰는 것 같았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늙는 것도 못 막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발전하는 것도 못 막는다. 어디 서예뿐인가.

고전무용반에서 춤을 배우며 얼굴에 웃음을 담은 루치아 자매와 안나 자매도 열심이다. 바리스타 봉사를 하면서 미소를 띠는 데레사 자매도 교회 안에서 유쾌함을 선물한다. 우리 반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인 사람들이 서서히 발전상을 보여준다.

하루는 공원의 정자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나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보니 우리 성당 하모니카 반이었다. 정말 행복했다. 어린 날의 동산을 떠올리게 해서 아코디언이나 하모니카 소리는 정겹다.

수채화 반원들이 공원에서 스케치 할 때도 나는 반갑다. 새벽마다 운동하는 태극권 반의 열정도 놀라고 수필 반의 출석률은 아무도 못 막는다. 쓰지 않아도 듣기라도 한다고 오는 분도 있다.

만사가 하면 는다. 더디 느는지 느리게 느는지의 문제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서로 공감하고 나누는 사이에 마음이 정화되고 정서의 안정을 맞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지 않을 수가 없다.

홀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무리를 짓는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된다. 누군가가 권하거든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마음 안으로 그 생각이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권하는 것도 사랑이고, 받아들여 해보는 것도 자기 사랑이다.

<문화홍보분과 위원, 오정순 알비나>

♣ 환경 개선 봉헌금 (*목표액: 3억원)

환경개선 봉헌금 (7 / 26 현재)			
선우젼마	300,000	신 베드로	500,000
총 누 계			165,029,000 원

♣ 청담동 성당 성물 봉헌금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성물 봉헌금 (7 / 26 현재)	
총 누 계	89,050,000원 / 362명
* 아름다운 청담동 성전을 위한 성물봉헌을 위해 교우분들께서 10만원씩을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사무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목		감사헌금 (7 / 26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23,500,000	윤 야고보	30,000	오 아녜스	100,000	총 세대수	3,817
주일 봉헌금	10,924,300	윤 소피아	80,000	익명	1,000,000	총 납부세대	1,210
본당시설보수 2차	7,118,200	한 로사	100,000	익명	1,000,000	지난주 납부세대	17
성소후원금 (4건)	45,000	합 계: 2,310,000원				지난주 납부율(%)	31.7%